사무직 여성 90년 여름 통권 1호(창간호)

<상담>

노조활동 그만두라는 남자친구

문) 노조활동 그만두라는 남자친구 때문에

<상담 1>

저는 모 보험회사 노조 여성부장으로 지난해 여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달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덕분에 처음 우연히 조합일을 하게 되었지만 1년이 지나는 동안 저는 제 삶에서, 즉 직업관이나 결혼관에서의 많은 변화를 기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전부터 사귀어 온 제 남자친구는 이렇게 변화한 저의 모습에 당혹해 하면서 조합일을 그만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제 노동조합 일은 제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상대로 생각해 왔고 감정적으로는 아직도 사랑하는 그가 이 문제로 자꾸 멀어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 2>

저는 모 회사의 노조 여성간부입니다.

20대 후반의 나이라 결혼을 염두에 두고 최근 몇 번 선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맞선 본 남자들이 호감을 표시하며 몇 번 만났다가도 제가 노조일을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나면 모두가 예외 없이 절교 선언을 해 옵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그저 담담하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런 남자들의 태도를 경멸했지만 요즈음은 왠지 초조한 생각이 듭니다. 이젠 부모님마저도 “남자들이야 다 그렇지 않겠느냐”며 차라리 노조일을 그만두라고 저를 나무라시니 자꾸 마음이 약해집니다.

답) 자신의 노조활동관 분명하고 의견차 좁힐 수 없다면 결단을

두 분의 상담 내용은 우리 사회가 여성들을 바라보고 여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아마도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은 기존의 여성관이란 자로 자신들을 재는 직장, 가정 그리고 이 사회의 분위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음고생은 때로 노조 여성간부들의 의지를 흔들어 놓기도 하고, 때론 말 못할 깊은 회의를 갖게 하기도 하지요.

일하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노동조합 간부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여성들에게는 여전히 주변에서 편견에 가득 찬 시선을 던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성들의 앞장선 활동은 ‘진취적이다’ ‘리더십이 강하다’ 하고 칭찬하면서도 똑같은 일을 여성이 하면 ‘설친다’ ‘드세다’라는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남편 곁에서 사랑받는 아내의 위치가 바로 여성이 설 자리라는 식의 잘못된 고정관념이 너무 완강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바로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려 나갈, 앞서가는 여성이고 새 세대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 여성간부 자신이 노조활동에 대한 분명한 자기 논리와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아니 흔들린다는 말이 있듯이 나는 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가? 라는 물음에 확고한 자기 답변과 의지를 확립해야 합니다. 자신이 분명한 노동자의식으로 무장하고, 노동조합 운동은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노동조건과 차별대우와 사회모순을 해결하는 운동이라는 전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속에서 자신의 활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자신의 적극적인 노조활동과 헌신적인 자세는 ‘산을 푸르게 하기 위한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일’과 같다는 마음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러한 마음자세를 전제로 자신의 삶의 방향, 연애와 결혼 그리고 남녀관을 재정립해야 되겠습니다. 연애와 결혼은 인생을 완성해 가는 하나의 단계이고 과정입니다. 자신의 삶이 노동운동과 이 사회의 민주화 운동의 과정 속에서 성취해 나가야 할 그런 것이라고 하는 전망을 가진다면 연애와 결혼—반려자를 선택하는 일— 역시 이와 관련하여 선택해야 하겠지요.

우리는 때로 주변에서 능력 있고 주관 뚜렷한 동료, 선배가 연애하고 결혼한 뒤로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애초에 설계했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예를 자주 봅니다. 이런 일은 자기 신념이 내면화 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남편의 요구대로 삶의 모습을 변형시킨 데서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실천하려면 평생을 함께 살아갈 남성이 아내의 삶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나아가 뜻을 함께 하여 일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담 1>의 경우 오랜 교제 기간으로 인해 갈등이 더욱 심할 수는 있으나 반려자의 선택에 있어 그 남성이 활동하는 여성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성을 동반자와 동지로 보는 수평적 남녀관을 갖고 있는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서로 마음을 열고 이해와 설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아야겠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생각의 차이를 조빌 수 없다면 과감한 결단이 요구됩니다. 생김새가 다른 벽돌로는 건물을 쌓아 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애와 결혼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면, 동료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토론해서 결론을 내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흔히 그것은 개인의 영역, 자기 혼자 판단해야 할 말 못할, 비밀스러운 사항으로 생각합니다만, 평생을 좌우할 중요한 일인 데다가 여서들이 겪을 수 있는 공통의 문제이므로 신뢰하는 동료, 선배들끼리의 토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무직 노동운동에서 여성간부들이 해야 할 몫은 아주 큽니다. 큰 몫만큼 앞서가는 여성들이 이겨내야 할 사회의 편견과 보수적 여성관의 장벽도 높은 것입니다. 또한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 서기 위해서, 노동운동가로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내면의 여성으로서의 열등감과 보수성을 과감히 떨치는 것이 전제돼야 합니다. 실천하는 여성활동가의 상을 재정립해 나가는 것은 새 세대의 사무직 노동조합 여성간부가 개척해야 할 몫입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일 속에서 참된 반려자인 남성 동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노동운동과 가정생활과 부부의 삶이 함께 어우러져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